

# 하상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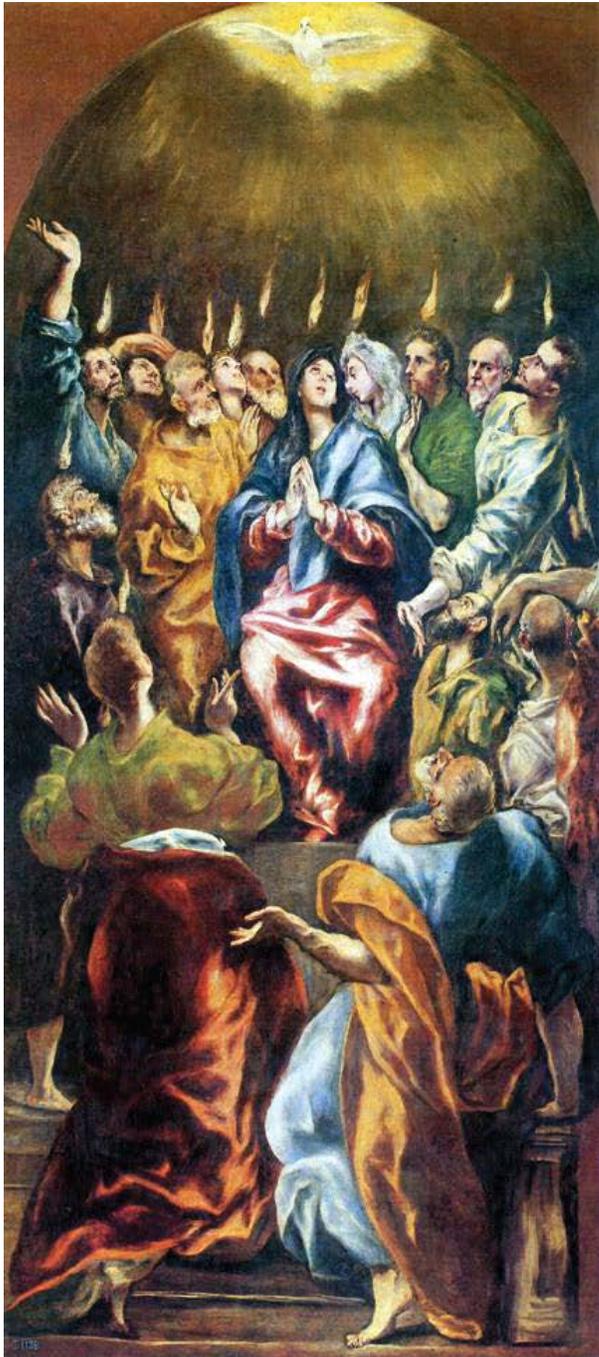
2016년 5월 15일 (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제1589호

##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 21-22)



성령 강림, 엘 그레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제1독서] ..... 사도행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2,3ㄷ-7.12-13<또는 로마 8,8-17>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성령송가>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 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 요한 20,19-23<또는 14,15-16.23ㄴ-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43] 진리의 성령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219] 주여 몸과 맘 다바치오니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493] 살아계신 주 성령



# “성령을 받아라!”

# “Receive the Holy Spirit!”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성령강림의 모습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오순절 때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각자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말이 틀려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창세 11,7-9)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것입니다.

The story of the Coming of the Spirit by Acts is very dynamic. When the time for Pentecost was fulfilled, the disciples were all in one place together.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the sky a noise like a strong driving wind, and it filled the entire house in which they were. Then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which par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different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to proclaim. Now there were devout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staying in Jerusalem. At this sound, they were confused because each one heard them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The language of the people became confused because of the Tower of Babel in Genesis, but the confusion was removed by the disciples who received the Holy Spirit.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의 인사를 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In the Gospel of John,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Whose sins you forgive are forgiven them, and whose sins you retain are retained.” The disciples were shrinking and locked the doors for fear of the Jews. But after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they came out and proclaimed the Gospel.

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움츠리고 있었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힘 있게 복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Jesus had told the disciple,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hese words were completed by the Coming of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Paul the Apostle said,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piritual gifts but the same Spirit.” He also said that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As a body is one though it has many parts, and all the parts of the body, though many, are one body, so also Christ. Through the history of Catholic Church, we experienced separations and limitations due to the limitations as humans, but we have been all one in the unity of Christ even if we have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가지이지만 모두 같은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1코린 12,3)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는 여러가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말을 하고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로 내려오고, 비록 갈라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Most importantly, it i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makes us have faith in the Lord that began from Nazareth and the Sea of Galilee. It is the grace from the Holy Spirit that makes us proclaim the faith in Jesus. Let us thank God for all the amazing gifts by the Holy Spirit that we received by Baptism and Confirmation.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자렛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인 것이지요. 세례 이후의 신앙이 견진성사를 통해 더욱 견고해 지도록 이끄는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활기차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강림**  
엘 그레코의 성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성령 강림의 증인이 되어 -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배경으로 ‘성령 강림’을 그렸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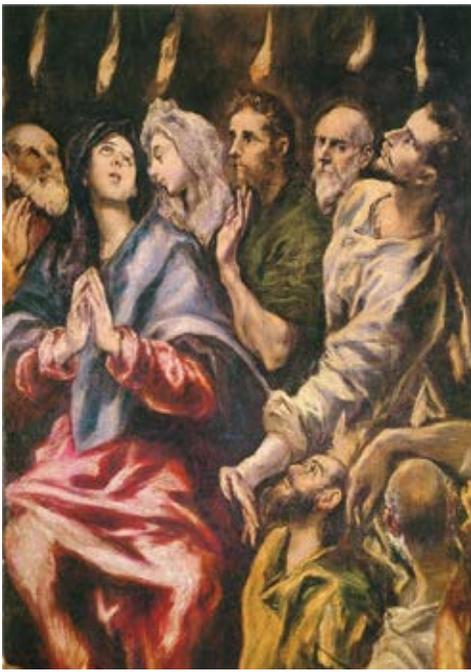
그림을 보면 원형 천정에 있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있다. 불꽃 모양의 빛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리고 있다. 그런데 위로부터 1/3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열 명의 시선은 수평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 성모님이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열다섯 명인데, 세 명의 여자와 열두 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아래 오른쪽 제자는 하늘을 향해 쓰러질 듯한 자세로 한 손을 뒤로하여 계단의 난간에 몸을 지탱하고, 다른 팔은 위로 벌린 채 모든 관심과 시선을 위로 향하고 있다. 사람들의 위치는 원형을 이루고, 사람들의 시선은 삼각형을 이뤄 원뿔 형태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그려진다. 그리고 제자들의 몸이 이루는 커다란 두 사선은 순교자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 모양이다.

또 손의 자세나 모든 동작이 곡선으로 이어져 신비로운 통일감을 더해 준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든 손과 팔이 벌려져 있지 않은가? 그것은 성령 강림이 열린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모님은 유일하게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는 성모님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나온다. 노란 옷을 입은 왼쪽의 남자가 베드로이고, 성모님 옆에서 고개를 돌리는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이며, 녹색 옷을 입은 오른쪽의 남자가 사도 요한이다. 베드로는 그분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성모님에 대해 “당신은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칭하는 것 같다.

요한은 그분을 향해 팔을 쳐들고 어머니로서 공경하겠노라고 선서하는 것 같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시선은 그분의 신비로운 내면까지도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다. 이 그림은 신비주의가 유행하던 16세기 스페인을 반영하고 있고, 이 시대에 아빌라에서는 성녀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람들을 관상의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성령 강림, 엘 그레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그래서일까?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제자는 자기의 허물을 벗어 던지듯 자기의 망토를 벗어 던지고 일어나 성모님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자도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증인이 되라는 듯이 우리를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제자들처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성모님처럼 하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 아닐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그림이 그가 마지막 활동 시기에 그린 작품이란 게 맘에 더 쫓하다.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이 주일의 성경 퀴즈** (요한 복음 20,19-23)  
동그라미 속을 채우며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퀴즈 정답: 5면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 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과 ○○○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을 붙여넣으며 말씀하셨다. “○○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학교들은 대부분 저녁식사가 끝나면 산책을 하며 묵주기도를 하고 성당에 모여 성무일도의 끝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침묵 속에서 각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음 날 전례를 보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복음과 독서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낮잠이 금지되어 있는 신학교 생활에서, 특히 반 체육 활동으로 낮에 운동이라도 한 날이면 몰려오는 졸음과 싸우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분심들은 계속 떠올라 하느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신학생들은 자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늘 분심과 졸음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리기도 합니다. 졸리면 그냥 졸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마음이고, 하느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성바오로딸 수도회 엮음)입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으로 총 31일로 나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만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따라 기도하다보면 우리는 당신의 앞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체조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 1학년 마지막 밤입니다. 신학생들은 11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방에 있는 자기 침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아 제 이불을 들고 성체조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성체조배실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느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가슴이 정말 따뜻했고,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계속 잠만 잤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성체조배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Sanctus Alphon-sus Maria a Ligorio)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일토록 하는 다른 모든 선행보다 성체 앞에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물론 어디서든지 하느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체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예수께서 더 쉽게 은총을 내리신다.**” 이처럼 성체조배는 하느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성당에 나와 성체조배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기숙사와 성당이 3분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신학생들이

성체조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물에 성체조배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신부님들께서는 각 기숙사마다 성체조배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원래 성체조배를 하던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성체조배실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성체조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이지 외적 요인들이 아닙니다.

주임신부님께서서는 올해의 사목 목표를 ‘공동체의 복음화’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제외하면 성체조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던, 주모경을 바치던, 성무일도나 아니면 성경을 읽더라도 성체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성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출근하기 전이라든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성당에 들려 예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칠 수 있을 때 우리는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 20)



◆ 제 1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자 성지순례 ◆



제 1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자 성지순례가 지난 7일 (토) 오후 1시 워싱턴 디시에 있는 내쇼날 슈라인 (성모무염시태성당)에서 있었다. 우리 본당에서는 47 명의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을 포함하여 총 85명의 신자들이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정오 경 내쇼날 슈라인에 도착하였다. 메릴랜드 올니 소재 워싱턴 한인 성당 청소년 팀의 힘찬 한국 전통 북소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비롯, 펜실베이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뉴욕 주 등 총 20 여 개 성당에서 참석했다.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다민족 가톨릭 신자 천여 명은 민족 고유 의상을 입고 성모상을 들고 입장하였다. 식전 행사에 이어 참가 본당 사제단과 이날 미사를 주재한 버나디토 아우자 대주교(교황청 유엔 상주대표) 입장으로 미사가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의 각 국 언어로 오후 4 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성지순례 행사에는 콜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



5월 꼬미시움 월례회의 개최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가 지난 8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46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묵주 기도, 회의록 낭독, 상급 평의회 소식 등으로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현 회계인 정선화 루시아 자매가 신임 꼬미시움 서기로 선출되었으며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노스 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와 샬럿 꾸리아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봉쇄피정 (7/29-7/31) 공지 및 묵주 만들기 진행 상황 논의, 가두 선교 워크샵 건의가 있었다.



## CYO What happened in our CYO?

### • Basketball Tournament



On May 7th, the CYO Boys Basketball team came together to compete in the KCPC Basketball Tournament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looking to improve upon their 2nd place finish from last year. Led by Coach Daniel Kim again, the team spent several weeks in preparation for the event. In pool play, the team finished undefeated in two games and earned one of the top two seeds for the playoffs. Unfortunately, they ended up losing in overtime in the semifinals in an intense game, their only loss in the entire tournament. Congratulations to the CYO Boys Basketball team and a big thanks to all those that came out to cheer on the team, including the incredible parents.

After Basketball game on May 7th, CYO students and teachers met again at the church and made beautiful flower corsages for all the moms at the church.



Moms love nothing more than a handmade presents from their children.▲

## SPC Sunday School Conference



2016 SPC Sunday School Conference was held on Wednesday, May 4th at the Hasang Building. Hosted by Fr. Seong, over 50 people including the Youth Ministry Council members, Assistant Principals of CCD & CYO, catechists, parish OPCYP Liaison as well as parents attended this annual event. The attendees were briefed about current school year's accomplishments so far, the initiatives for the next school year and some challenges to overcome. During the 'Question & Answer' session, many positive, encouraging and valuable ideas were discussed.

## CCD What happened in our CCD?

### • First Communion workshop



First Communions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a workshop on Saturday, May 7th, 2016. The two-hour workshop was filled with Fr. Seong's talk, sharing parents' letters to their children, craft and practicing about receiving Holy Eucharist.

## Pentecost (Whitsunday) May 15



Pentecost, or Whitsunday is the day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Apostles and Mary. To meditate and bring home the wonderful events of this day, one can create a Cenacle, just like the Christmas Nativity or Easter Garden.

This feast has been called the Pasch of Roses, because red roses are thought to be

emblems of the tongues of fire that descended upon Mary and the apostles.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red vestments are worn at the Whitsun Masses.

In the thirteenth century in some parts of Europe a dove was set free inside the church during the Mass, while pieces of lighted tow were dropped from the roof. Childish enough, one may say, but at least it attempted to drive home the reality of what happened on the first Whitsun. Doves and lighted rope are hardly possible nowadays, but there is a way of impressing the significance of Whitsun on ourselves. Just as we make a crib at Christmas and an Easter garden at Easter so we can make a cenacle at Whitsun. We shall need figures of eleven apostles and our Lady, while the Dove can hang over all of them and the tongues of fire radiate from the Dove. We can link up the cenacle with the old name for Whit Sunday by decorating it with red roses, the symbolism of which should be explained.

### ANNOUNCEMENTS

- 1 **CCD Outdoor Mass & Picnic Registration**
  - Students who would like to attend the event need to turn in two forms (Registration and Permission forms) to the Hasang Lobby.
- 2 **First Communion**
  - Sacrament of Baptism (Fri., May 20, 7:30pm Mass)
  - First Confession (Sat., May 21, 10am)
  - First Holy Communion (Sun., May 22, 11:40am Mass)
- 3 **SPC CCD Summer Camp (Aug. 12 - Aug. 14)**
  - Registration will start soon

1 하상회 / 안나회 모임

• 일시: 5월 15일 (일), 친교의 장터

2 견진예식

• 일시: 5월 15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알링톤 주교좌 성당

3 알링톤 교구 다민족 공동체 음악회

• 음악회 일시: 5월 21일 (토) 오후 5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d, Alexandria)  
• 문의: 노혜란 (301) 335-2532

4 첫영성체 성사반 일정

• 세례성사: 5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 중 오후 6시 30분에 대부모님과 함께 리허설이 있습니다.  
• 첫 고해: 5월 21일(토) 오전 10시  
• 첫 영성체 예식: 5월 22일 (일) 오전 11시 40분 학생미사 중

5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일정: 5월 21일 (토), 5월 22일 (일)  
• 물품 기증: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동훈 요한 (703) 585-2700

6 요한회 (50대) 월례회의

• 일시: 5월 22일 (일) 오전 11:30 (B-3)

7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월 22일 (일) 오전 11:40 (하상관 B-4, 5)

8 K of C 정기모임

• 일시: 5월 22일 (일) 오전 11:30 (B-1, 2)

9 2016년 파티마 전체 쉼 기도 모임

• 일시: 5월 22일 (일), 오전 11:30, 나눔터  
• 문의: 김만식 재권요셉 (703) 403-1185

10 성모의 밤

• 일시: 5월 27일 (금) 오후 7:30  
• 꽃 봉헌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1 2016년 미등부 성령대회

• 일시: 5월 29일 (일) 오후 2시-9시, 5월 30일 (월)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문의: 김 그라시아 (703) 229-7928

12 사도 임원회

• 일시: 5월 20일 (금) 오후 8시

13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 작품 전시(봄학기)

• 일시: 6월 5일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친교실  
•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강사 김 이레네)에서 봄학기 동안 그린 작품(유화, 아크릴, 수채화) 20점을 전시하니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명희 율리아나 (703) 217-2775

14 M.E 미 동북부 제71차 주말 부부 모임

• 미 동북부 M.E에서 주말 부부 모임을 초대합니다.  
• 접수: 미사 후, 친교실  
• 일시: 5월 28일 (토) 오후 7시 - 5월 30 (월) 오후 5시  
• 장소: Wyndham Garden Hotel Newark (NJ)  
• 문의: 김영술 김생금 부부 (703) 477-2446, 노응홍 노월순 부부 (973)255-7344

15 성 정바로 성당 청소년 장학금(2016-17)

• 자격 조건: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  
• 장학 금액: \$1,000 • 신청 마감: 5월 29일 (일)  
• 장학금 전달: 6월 12일 (일) 오전 10시 미사중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상관 지하실 정리 준비 모임(시설부)

• 일시: 5월 22일 (일) 11:40 (하상관 110)  
• 하상관 지하실에 물품을 보관한 부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은 부서의 물품은 임의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홍순철 요한 (571) 239-1132

17 메모리얼 데이 미사

• 일시: 5월 3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18 전례봉사자 모집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미사 해설자 및 1,2 독서자 모집중  
• 접수: 5월 21일(토)까지 본당 입구에서 접수  
• 문의: 김용희 라파엘 (703) 585-8380

19 5월 성물부 세일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는 성상, 고상, 목주를 20% 세일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20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주문 접수

• 신청: 성모회, 장 예디타 (703) 973-7159

— \* 2016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

오늘 (5월 15일) 10시 미사 후 본당 뒤 주차장에서 친교의 장터 한마당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 음식 판매 및 윷놀이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5월 19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행복 특강: 신앙의 눈으로 행복의 비결을 듣는 황창연 신부의 특강 시리즈 5편
• 인물 에세이: 시카고장애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 선 맛사지사 부부, 동두천의 천사 부부를 만나본다.

- 5월 20일(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5월 8일 (부활 제7주일)
주일헌금 \$ 8,411.00
교무금 \$ 12,760.00
교무금(신용카드) \$ 4,610.00
특별헌금 \$ 500.00
2차 헌금 \$ 2,318.00
합계 \$ 28,59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5월 15일 ..... 애난데일 3
5월 22일 ..... 알렉산드리아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태,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희(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이종성(요한)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이슬(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최영배 씨 자: 최윤석
◆ 신형중 씨 녀: 신혜민 에메렌시아
• 일시: 2016년 5월 28일 (토) 오후 5시
• 장소: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Table with 3 columns: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Rows include 5월 15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16일(월) 연중 제7주간 월요일, 17일(화) 연중 제7주간 화요일, 18일(수) 연중 제7주간 수요일, 19일(목) 연중 제7주간 목요일, 20일(금) 연중 제7주간 금요일, 21일(토) 연중 제7주간 토요일, 5월 22일(일) 삼위일체 대축일.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b>Mercedes-Benz</b> 유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Susan Interior</b>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COLUMBIA COLLEGE</b> 연방정부 학비보조 가능 admissions@ccc.edu 703-206-050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하얀나무치과</b>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영훈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LED Lights</b> 매장창문, 건물라인 쇼케이스 및 진열장 쿨러, 간판, 형광등 설치·판매 773-931-1238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Springfield TOYOTA</b> New / Used Cars 조상준(유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b>중미반점</b>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HYUNDAI 자동차</b> 찬틀리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Kitchen, Deck</b> <b>Sunroom</b>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확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b>현대 부동산</b> 이창호(어거스틴) 571-455-0768	<b>J C Provision</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703-625-1007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b>주일 저녁 6시까지</b>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